

**✓증권 다이제스트**

ELS 및 DLS 10종 공모  
- 3/21(수)까지 모집

**KB증권**



**KB증권 ELS·DLS 등 총 10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21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S&P500)으로 연 7.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able ELS 450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8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OSPI200지수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able ELS 445호(3인덱스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5.7%(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신나는 한판 그웨잇! 이벤트 실시



**신한금융투자 '신나는 한판 그웨잇!'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신나는 한판' 내에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며 '신나는 한판 그웨잇!' 이벤트를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신나는 한판'은 신한금융그룹의 은행, 카드, 생명, 금융투자자의 핵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 최초의 통합 모바일 플랫폼이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각 계열사 대표앱(신한i알파, SOL뱅크, 신한FAN, 스마트창구)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문호 기자

**미국달러 전망과 글로벌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일시 2018.03.21(수) 오후 4시  
장소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5층 연수실



**한국투자증권 해외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1일 개인투자자를 위한 '미국달러 전망 및 글로벌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정우 경제분석 담당 애널리스트와 백찬규 해외주식 담당 애널리스트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달러와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2분기 해외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강의 후에는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매월 셋째 수요일에 해외 유망주식, 글로벌ETF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 50명까지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 상가·오피스 ↑

오피스·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수익률 오름세 나타나... 관심 ↑

최근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틈새상품인 오피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는 선별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 오피스텔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임대수익률은 4.86%다. 지난해 1월 5.11%와 비교하면 0.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작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6.73%,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6.29%다. 오피스와 집합상가 모두 오피스텔 수익률 대비 1%포인트 이상 높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지식산업센

〈수도권 주요 수익형 부동산 분양리스트〉

위치	단지명	연면적㎡(규모)	분양문의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	금강펜테리움 IX타워	28만 7,343	1899-4578
경기 용인시 역북지구 A블록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단지 내 상가	1,704	1599-2329
대전 유성구 복용동	디오토몰	8만7,955	042-825-6655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 GT타워	2만3,184	032-567-4610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각사

터는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지난 2006년 751건에서 2016년 4987건으로 약 6.6배 증가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 물량 증가, 용자지원, 세금감면 등으로 신규 창업 및 사무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은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형 상품으로 금강주택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 지식산업센터 2개동과 기숙사 1개동이며 대지면적 5만1801㎡, 연면적 28만7343㎡다. 산업클러스터로 구축되는 동탄테크노밸리에 위치하며 SRT와 GTX(예정)를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과도 인접해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형 기숙사를 함께 분양하는 점도

눈에 띈다. 23~49㎡ 675실이며, 2층에는 육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원개발은 이달 중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A블록에 공급하는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

상가는 연면적 1704㎡, 34호실이며 용인 역북지구는 41만7284㎡ 규모로 올해까지 4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서는 디오토몰 상가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약 8만7955㎡ 규모, 지상 6층으로 건립되는 디오토몰은 대규모 자동차 매장과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외식 등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복합매대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는 가좌GT타워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규모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약 1km 거리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회계법인 10곳 중 7곳, 최소 감사시간 규정 없어

관리 시스템·모니터링 관리 소홀 사전점검 등 관련 내부통제 미흡

회계법인 10곳 중 7곳은 최소 감사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직접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개사의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11개사(26.8%)에 불과했다. 나머지 30사(73.2%)는 최소 감사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해당 41개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 59.6%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최소 감사투입시간 관리현황〉

구분	규정화됨	규정화 미비	합계
4대 회계법인	3 (75.0%)	1 (25.0%)	4
중소형	8 (21.6%)	29 (78.4%)	37
합계	11 (26.8%)	30 (73.2%)	41

\* ( )안은 규모별 점검대상 대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 감사투입시간을 정하고 감사시간이 최소 시간에 미달하면 사전심리 시 미달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감사투입시간 부족사실을 담당이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시간관리시스템이나 모니터링도 미흡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삼일·삼정

·안진·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 4개사를 포함한 27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14개사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은 총 41개사 중 18개사로 절반이 안됐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 두 곳도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시간에 대해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개사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4곳 중 한 곳을 빼고는 모두 공시 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나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올해 코스피 상승률 1%... G20 국가 중 7위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보여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 20개국(G20) 대표지수 중 7위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는 2492.38로 마감, 작년 말보다 1.0% 오른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G20 국가의 대표지수 중 코스피 상승률은 브라질(11.2%), 아르헨티나(8.8%), 러시아(8.0%), 사우디아라비아(7.2%), 이탈리아(3.9%), 터키(1.6%)에 이어 7번째다.

그 뒤를 미국(0.6%)이 이었다. 나머지 영국(-7.1%), 독일(-4.4%), 일본(-4.2%), 캐나다(-3.3%), 멕시코(-3.1%), 유럽연합(-2.6%), 호주(-2.3%), 남아프리카공화국(-2.2%), 인도(-1.1%), 프랑스(-0.9%), 인도네시아(-0.5%), 중국(-0.5%)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발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은 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빠

〈G20 국가 대표지수 등락률〉

순위	국가명	대표지수명	17년말 대비 등락률(%)	순위	국가명	대표지수명	17년말 대비 등락률(%)
1	브라질	BOVESPA	11.20	10	인도네시아	JKSE	-0.50
2	아르헨티나	Merval	8.80	11	프랑스	CAC40	-0.90
3	러시아	RTSI	8.00	12	인도	Sensitive3.0	-1.10
4	사우디	TASI	7.20	13	남아공	ALSH	-2.20
참고	신중국	MSCI신흥	5.00	14	호주	ALL ORD	-2.30
5	이탈리아	FTSE MIB	3.90	15	EU	STOXX50	-2.60
6	터키	BIST 100	1.60	16	멕시코	IPC	-3.10
참고	선진국	MSCI 선진	1.40	17	캐나다	S&P TSX	-3.30
7	한국	KOSPI	1.00	18	일본	Nikkei225	-4.20
8	미국	Dow 3.0	0.60	19	독일	DAX30	-4.40
9	중국	ShangHai	-0.50	20	영국	FTSE100	-7.10

\* 2018년 3월 15일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르게 회복된 셈이다.

이로써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1월 29일 지수(종가 기준 2598.19)의 95.9% 수준으로 회복됐다.

G20 국가의 대표지수 중 터키(97.0%)가 사상 최고치에 가장 근접해있지만 코스피도 브라질(96.9%)에 이어 3

번째로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93.5%)은 7번째다.

1989년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56.0%)과 중국(54.0%), 러시아(50.1%), 이탈리아(45.3%), 사우디아라비아(37.6%)가 16~20번째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김문호 기자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뉴딜 영상 공모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한 영상 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를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이야기로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 일자리(신규 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 '우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알리기', '국가 지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의 2분 이내의 창의적인 영상물로 3월 19일~5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접수를 한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하여 대상 500만원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채용 기회를 부여한다.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city.go.kr)과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4you)를 참조하면 된다. /이규성 기자